『신앙과 학문』. 18(4). 33-70.

고령화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
– 세속주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 **

김 승 욱***

논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인구고령화의 문제점을 세속주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 기독교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에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됨에 따라 학계와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여러 대책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경제문제에 국한되어서 고령화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인구고령화 문제의 근본 원인은 세속주의의 확산에 있으며, 최근의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은 고령화 추세를 우리가 예상한 것 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 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통 가족관계나 종교의 역할이 회복이 되어 세속주의 확산에 제동을 걸어야 하며, 이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이라는 사실을 사회에 알려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생명을 무한히 늘리려고 하는 시도는 기원논쟁에 새로운 측면을 부여할 것이며, 이러한 유물론의 도전에 기독교가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 고령화, 저출산, 세속화, 세속주의. 생명과학기술

---

* 이 논문은 2013년도 중앙대학교 연구년 결과물로 제출됨.

** 이 논문은 2013년 2월 21일에 열린 경제학공동학술대회 기독교경제학회 발표논문을 기초로 함. 당시 귀한 토론을 해 주신 조성봉 교수와 본 논문을 심사해 준 본 학회지의 세 익명 심사자의 지적에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모든 잘못은 본인에게 있음을 밝힌다.

*** 중앙대학교 경제학 교수

2013년 12월 10일 접수, 12월 23일 최종수정, 12월 26일 게재확정

I. 서론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에 포함되면서 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평균 기대수명은 1900년까지도 30세에 불과했는데 오늘날에는 전 세계 평균 기대수명은 64세로 늘어났다(Fishman, 2011: 26-27). 가난한 나라에서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하지만, 선진국에서는 20%를 넘었다. 노인 인구가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Diamond, 2012: 345) 피터 드러커(Drucker, 2007: 24, 40)도 선진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젊은층 인구비율 감소현상은 과거 로마시대 이후 처음 있는 현상이며, 인구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므로 인구변화를 주시하라고 했다. 그는 "인구통계는 다음 사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가장 예측하기도 어렵고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Drucker, 2007: 42). 테드 피시먼(Fishman, 2011: 447)에 의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1시간마다 세계 평균수명은 11-15분 정도" 늘어나, 하루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우리의 예상수명이 5시간씩 늘어나고 있다. 일본은 2006년에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hyper aged society)'에 들어섰고, 그 뒤를 따라 독일이 들어섰다(전영수, 2011: 339).

고령화 현상은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미국의 GM이 파산위기에 몰렸던 이유 중의 하나도 고령화가 원인이었다. 즉 유산비용(legacy cost)으로[1] 고비용구조가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다. GM은 미국자동차산업노조(UAW: United Automobile Workers)의 퇴직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지불 요구를 1946년에 수용했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어 1980년대 이후 퇴직고령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110만 명에게 의료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어, 미국 전체 의료보험시장에서 가장 큰 고객이 되었다. 그리고 1993~2007년까지 15년 동안 지출한 의료보장비 중 3분의 2이상이 퇴직자를 위한 비용이었다. 이로 인해서 GM은 자동차 1대당 1,904달러(2008년 기준)를 의료비용으로 부담해, 이것이 GM의 경쟁력 하락의 한 요인이 되었다.[2]

---

1) '유산비용'이란 용어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급된 유가족에 대한 지원비용에서 유래 된 것이다.

2) 물론 GM이 경쟁력을 상실한 이유에 대해서는 유산비용 이외에도, 생산라인의 경직된 운용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 고유가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낮은 연비의 대형차 위주 생산, 할부 금융 등 금융부분에 대한 과도한 투자, 일본과 한국의 저가 자동차들에 의한 시장 잠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오늘날 유럽에서 복지국가이념이 후퇴하고 있는 이유도 그 뒤에는 고령화현상으로 인한 재정부족이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1960년에는 근로자 네 명이 퇴직자 한 명을 부양하는 수준이었으나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이제는 두 명이 한 명을 맡는 수준으로 낮아졌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재정 파탄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지난 2010년에 평균 연금 수령액을 낮추고,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려고 하자 거센 반발을 받았다.[3)]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를 뿐만 아니라 2050년에는 전 세계에서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한국금융연구원, 2011). 인구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문제는 개인의 복지 차원을 넘어서 경제성장, 빈부격차, 노동문제, 주택문제, 산업정책, 기업경영, 자녀교육 및 양육, 가족학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매우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는 최근에 고령화에 대한 연구나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학계의 연구나 정부의 정책 등 대부분 인구고령화의 문제를 경제적 문제로 인식하고, 경제적 해결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에서 강조되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인 고령화에 따른 심리적이고 문화적인 요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령화의 원인이 세속주의의 확산에서 비롯되었으며, 따라서 그 해결책도 세속주의의 확산을 막는데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다. 세속주의 확산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통적인 가족관계나 종교, 특히 기독교가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상당히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Ⅱ절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고령화 현상에 대한 연구가 주로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였다. Ⅲ절에서는 정부의 정책 역시 경제적인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설명했다. Ⅳ절에서는 고령화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이 세속주의의 확산과 관련이 깊고, 평균수명의 추세가 잘못된 가정에 근거했으며, 향후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세속주의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기독교적 대응을 제시했다. 마지막 절에서는 요약·결론과 함께 향후 기독교계의 과제를 제시했다.

---

3) 프랑스의 연금수준은 독일(37%)이나 영국(30%)보다 많다. 정년도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65세인데 비해서 프랑스는 60세이다. 1982년에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행복한 노년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정년을 5년 앞당겼기 때문이다.

II.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한 연구의 초점

인구고령화에 관련된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많은 연구가 인구고령화가 가져올 경제적인 충격(이수희 외, 2004)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비(남주하 외, 2004), 연금제도(김원식, 2004), 잠재GDP(임진, 2013; 김도영, 2012; 조장옥, 2004; 문형표 외, 2004)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특히 노동경제학 분야에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은퇴결정요인(권승・황규선, 2004), 고용 및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김태정, 2011; 박성준, 2004; 박경숙, 2003; 정초시, 2012), 평생학습(변정현, 2011)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복지분야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부딪힐 문제(정경희 외, 2011; 박경숙, 2003)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 보장 및 주거 문제(윤주현・강미나・송하승, 2004)등도 연구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의 원인과 대응책에 대한 연구가 많다(이인순, 2011; 전현배・이인재, 2009; 박원란 2010).

특히 최근에 이루어진 통계나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들을 보아도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부분 경제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정순둘・박현주・김보경, 2011: 203). 이것들을 몇 가지로 구분해서 보면 첫째, 인구고령화 현상은 세계 각국의 공통된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더 문제가 많으며, 그 문제의 핵심이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인데 비해서, 노후준비는 세계최하 수준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통계청(2005)에 의하면 한국이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는 26년이 소요되어 155년이 걸린 프랑스나 미국(88년), 독일(78년) 등은 물론 가장 빨리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36년) 보다도 더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50년에는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5세로 예상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38.2%로 대표적인 고령사회인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고령화율이 더 높은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령자 부양비율'[4]도 2050년에 9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4) 생산가능인구 (20세 이상 64세 이하)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중 세 번째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5] '인구고령화지수'는[6] 머지않은 장래인 2020년에 이미 125.9로 상승해서,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보다 높이질 것이다.

이러한 예측과 함께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한 은퇴준비 미비가 가장 큰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명호(2011)의 전국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41.9%가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2011년 7월에 세계 20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화 준비 지수(*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 GAP Index)*"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비 소득 적절성 지수' 순위는[7] 19위로 멕시코와 중국(18위)보다도 낮았다.[8]

특히 전후 베이비부머 세대[9]들에게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베이비부머 2,250명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정경희 외, 2011) 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보험 중 어느 것 하나에도 가입하지 않은 무(無)연금자 비율이 22%(156만 명 추정)에 달했다. 특히 여성 베이비부머는 32.5%가 아무런 연금을 갖지 않고 있었다. 또한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와 메트라이프 노년사회연구소(2012)가 공동 발표한 "메트라이프 통합은퇴준비지수(MIRRI)"에 의하면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준비 점수는 100점 만점에 62.22점으로 낙제점에 가까울 정도로 낮았으며, 건강(66점)이나 사회적 관여(네트워크)(68.6)에 비해서 특히 재무준비(52.6)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5) 1위는 98.5%의 이탈리아, 2위는 94.9%의 일본이었다.

6) 14세 미만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7)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고령화 준비 지수는 국가의 고령화 대비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이다. 이는 고령화에 대비해 삶의 질을 유지할 만큼 노인의 소득이 준비됐는지 평가하는 '소득 적절성 지수'와 노인에게 제공할 공공지출을 견뎌낼 만큼 재정이 탄탄한지 평가하는 '재정 지속가능성 지수'로 구성되어 있다(Jackson, Richard, Neil Howe and Keisuke Nakashima, 2011).

8)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40년이 되면 노인 소득의 45.9%를 공적 부조로 지원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노인 소득은 중년층 소득의 79%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노인 소득 중 사적 연금의 비중은 3.2%밖에 되지 않는다.

9)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는 6·25 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가족계획 정책이 도입된 1963년 사이 태어난 세대로 약 7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에 달한다(통계청, 2011). 이들은 6·25전쟁의 혼란 속에서 태어나 1970~80년대에 산업역군으로 근대화·산업화를 이끌었으며, 부모 봉양과 자녀 뒷바라지의 이중 부담을 지며 살다가 정작 자신의 노후준비에는 소홀했던 세대다.

〈표1〉 OECD 주요 국가별 지니계수 비교

	65세 이상 고령층	18세 이상-65세 미만
멕시코	0.524	0.469
칠레	0.474	0.496
한국	0.409	0.300
터키	0.399	0.403
이스라엘	0.398	0.359
미국	0.386	0.370
일본	0.348	0.323
포르투갈	0.344	0.347
호주	0.328	0.324
아이슬란드	0.326	0.301
OECD 평균	0.305	0.311

65세 이상 지니계수 기준 상위 10위권 국가 기준
자료: Zaidi (2009)

둘째, 고령층의 빈부격차에 대한 연구가 많다. 고령층의 빈부격차는 국민전체의 빈부격차보다 높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10] 45%로 OECD 평균 13.3%의 3.5배에 달하며, OECD 국가 중 최악이다(Zaidi, 2009). 또한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 주요 국가별 지니계수를 비교해 보아도 한국은 65세 미만의 경우 0.300으로 OECD 평균인 0.311보다 더 낮아 양호한 소득분배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에는 0.409로 OECD 평균인 0.305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노년대책에 대한 연구가 많다. 유교문화권에서는 노년대책을 자녀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고령층은 자신들의 노후대책을 소홀히 하고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조선일보와 미래에셋증권이 실시한 "은퇴에 관한 국민여론조사"에 의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한국에서는 47.4%였는데, 이는 한 자녀 정책을 편 중국(5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이 수치는 캐나다(11%), 미국(6%), 영국(6%), 인도(4%) 등은 물론이고, 우리와 비슷한 유교국가인 일본(30%)이나 홍콩(11%)에 비해서도 월등이 높다(조선일보, 2005).

10) 노인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중위소득 미만에 속하는 노인의 비율.

네 번째, 한국의 대부분 고령자들은 개인저축도 매우 빈약한데, 그 원인에 관심을 많이 기울인다. 그 주된 이유는 자녀 교육에 너무 많은 지출을 하며, 결혼에도 부모가 능력이상으로 많은 지출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의 청년실업문제 등으로 인하여 부모의 노후 자금마저 자녀에게 지출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신세라, 2009)가 서울 및 수도권의 55세 이상 은퇴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은퇴 전까지 노후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이 자녀에 대한 과다한 투자(59%) 때문이었다.[11] 과다한 결혼비용과 부모에 의존하는 결혼문화도 역시 고령층이 저축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50~60대는 이미 648만 가구 중 271만 가구가 빈곤층인데, 이 연구에 의하면 자녀의 신혼집 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최대 110만 가구가 추가로 은퇴 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 번째, 신빈곤층이 주로 고령층에서 양산되고 있어 고령층이 나이가 들어도 은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가 많다. 통계청의 "2011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9.4%로 아이슬란드(36.2%)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하루 일과 중 근로시간(2009년 기준)이 한국은 1시간 39분이었는데 비해서, 스페인은 7분에 불과했다. 선진국 중에 가장 긴 미국도 42분에 불과했다. 반면에 영국(4분), 네덜란드(10분) 등 주요 선진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고령자 노동시간이 매우 짧다.

게다가 고령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전문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비정규직이나 한시적인 일자리를 전전하는 것이 현실이다. 고령자 여성은 음식점 외에는 일자리를 얻기 어렵고, 남성 고령자의 경우 주유소 직원 등이 고작이다. 이런 점에서 이제는 손자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가 일용직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65세 이상 고연령 취업자의 직종은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단순노무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1) 2위는 소득부족(38%), 3위는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부족(2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2〉 65세 이상 고연령 취업자의 직종

	남		여	
입법공무원/고위임직원/관리자	46	(7.7)	11	(2.1)
전문가	22	(3.7)	2	(0.4)
기술공 및 준전문가	7	(1.2)	4	(0.8)
사무직원	19	(3.2)	50	(9.5)
서비스근로자/시장판매 근로자	45	(7.6)	69	(13.0)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326	(54.9)	274	(51.8)
기능원 및 관리기능 근로자	21	(3.5)	18	(3.4)
장치 ·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16	(2.7)	1	(0.2)
단순노무직 근로자	92	(15.4)	100	(18.9)
Total	594	(100)	527	(100)

자료: 통계청 (2011) "2011년 고령자 통계"

그리고 <표3>의 65세 이상 고연령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자영업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남성의 경우 67.4%에 이른다. 이렇게 퇴직자들은 자영업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자영업의 전망은 밝지 않다. 한국노동연구원(2012)에 의하면, 2011년 상반기 7만 7,000개의 자영업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이 중에 77%(5만 9,000개)가 5인 미만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운수업 등이었다. 자영업에서 실패한 고령자들은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만다.

〈표3〉 65세 이상 고연령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단위 : 천명, %)

	남		여	
상용근로자	39	(6.6)	5	(1.0)
임시근로자	63	(10.7)	44	(8.4)
일용근로자	34	(5.8)	77	(14.8)
고용주	28	(4.8)	3	(0.6)
자영자	397	(67.4)	220	(42.2)
무급가족 종사자	28	(4.8)	172	(33.0)
Total	588	(100.0)	520	(100.0)

자료: 통계청 "2011년 고령자 통계"

이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이 최근에 해마다 50만 명씩 은퇴대열에 합류하고 있는데, 노후대책이 마련되지 못해서 은퇴 후에도 창업에 나서거나 일용직 근로자로 다시 일터로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2013a)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중 최고연령층인 55~6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에 59.5%였던 것이 2013년 5월 현재에는 67.4%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노후준비가 부족해서 은퇴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질은퇴연령이 한국의 경우 70.3세로 멕시코(72.2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프랑스는 59.1세, 이탈리아 61.1세, 그리스 61.9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10년 정도 늦게 은퇴한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연금소득은 15%에 불과한 반면에 근로소득 비중은 58%로 OECD 회원국 평균치인 21%의 2.7배에 이른다.

또한 2011년에 신설법인이 6만 5,110개로. 한해 신설법인 수가 2008년의 5만개 수준에서 크게 늘었다. 특히 2011년 12월 한 달 동안 새로 생겨난 업체가 6,645개로 이 통계를 발표한 이후 최대 규모였는데, 이는 불경기에 이례적인 현상이다. 한국은행(2012)은 그 원인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창업 증가가 주된 이유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생활비가 부모의 주머니에서 나가기 때문에 더욱 고령층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통계청(2013a)에 의하면 2012년 11월 현재 20대의 비경제활동인구가 238만 명으로 38.4%에 이르렀다. 30-40대 캥거루족도 무려 5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중에 대학 졸업자가 절반이나 된다. 직장을 갖지 못한 자식들이 사업을 하거나 집 마련 등으로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절대 해약이 불가능한 '종신형 즉시 연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도 이러한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 연금이 수익률이 다른 연금상품에 비해서 높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잘 팔리는 이유는 거의 유일하게 해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12]

마지막으로 인구고령화 문제와 주택문제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산의 80% 가까이가 주택 등 부동산인데, 고령층의 경우에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금융자산만으로 노후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1). 통계청(2013b)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베이비부머는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지속

12) 생명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종신형 즉시연금상품으로는 삼성생명의 '프리덤 50+ 파워즉시연금보험,' 대한생명의 '리치바로연금보험,' 미래에셋생명의 '러브에이지가입즉시연금보험,' 알리안츠생명의 '골드플러스즉시연금보험,' 신한생명의 'VIP즉시연금보험' 등이 있다.

하는데 월 148만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은퇴 시점(55세)부터 죽을 때(83세)까지 적어도 3억6,000만원이 있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베이비부머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3,775만원이므로, 베이비부머들의 평균 자산과 은퇴 후 필요 자산이 비슷하다. 그러나 빈부격차를 고려했을 때, 베이비부머 가구주 370만 명 중 280만 명은 은퇴 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고령화 현상은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대형 평수 주택의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된 역모기지론[13]이나 고령층 주택대출에 대한 연구가 많다.[14]

III.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화현상에 대한 학계나 연구소의 관심은 경제적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런 면은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인구고령화 문제에 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참여정부가 시작된 2003년의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기획단' 출범 때부터이다. 이듬해에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정책조율 기능을 맡겼다. 그리고 고령화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은 2005년 5월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면서부터이다.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8개 분야의 19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2008년에는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고 부처 중심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저

13) 역모기지론이라고 불렸던 주택 연금은 미국시장에 비해서 한국 시장에서는 큰 반향이 없었다. 처음에 등장했던 2007년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점차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부부 모두 60세가 넘어야 하고, 1가구 1주택자에 한하며, 집값이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등 조건도 까다롭기도 하고, 자식에게 집 한 칸은 물려주어야 한다는 인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 등 때문이다.

14) 6억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중의 54%가 50대 이상에게 대출되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입장의 고령층은 2008년 후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일본식 노후난민이 될 징후까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1992년 파산 신청자 중 60세 이상이 8%였지만, 2005년에는 17%로 급증했다. 우리나라도 2011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채무재조정)을 신청한 40대 이하는 전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50대 이상은 8.6% 늘어났다. 앞으로 부동산 침체가 지속될 경우 한국에서도 이러한 노후난민이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정책본부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제정했다.

2006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15개 중앙부처, 연구기관, 민간전문가가 대폭 참여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추진할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제1차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이하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새로마지플랜'이란 이름으로 발표하였다.

이 1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국가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대한민국정부, 2010: 14). 이 계획에 의하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혼부부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고령사회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적연금제도를 체계화하고, 사적 소득보장체계를 확충하며, 공적 노인요양보험체계를 확립하고,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성과 고령자 등 잠재인력을 활용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임금피크제를 지원하는 등 기업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고 역모기지제도 등 고령사회의 금융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요약하면 정부의 재정지원과 기업의 참여를 통해 출산을 유도하고 고령층 고용을 제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제시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0). 그리하여 정부는 1차 계획기간 동안 237개 세부 과제를 시행했으며, 5년간 총 42.2조원을 투입했다(대한민국정부, 2011: 13).

이렇게 참여정부 시절에 의욕적으로 시작된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크게 위축되었다. 정부는 고령친화산업팀을 해체하여 정책부서에 편입시켰으며, 그간의 지원사업 추진 성과를 기초로 결과가 불분명한 분야에는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2010년에도 계획된 U-health, Wellness, U-Silver 사업 등이 추진되지 않았으며, 고령친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정경희 외, 2011: 318).

제1차 기본계획의 한계[15]를 보완하기 위해서 1차 계획기간이 끝난 후인 2011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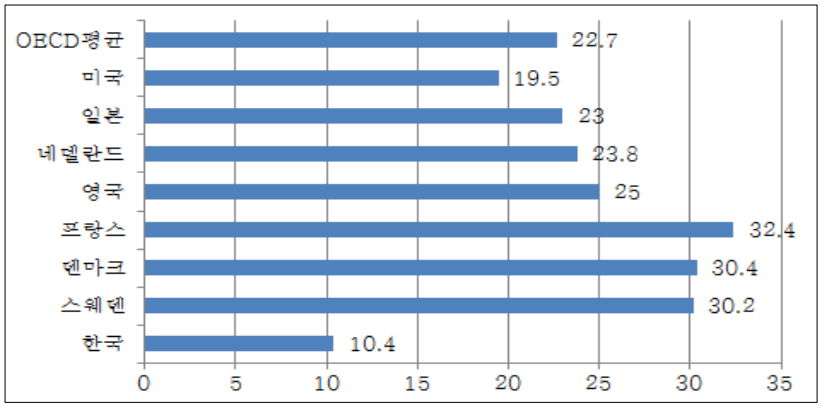
15) 제2차 기본계획(2011: 36)에서는 1차 계획의 한계를 첫째는 맞벌이 가구, 베이비 붐 세대 등 정책적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해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 체감도가 낮았다는 점;

기획재정부는 5개 정부부처가 참석한 '100세 시대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2011-15년 기간을 목표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제2차 기본계획')"을 '새로마지 플랜 2015'라는 명칭으로 수립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제2차 기간(2011~2015년)중에는 점진적으로 출산율을 회복하고,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세 가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첫째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둘째는 고령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며, 마지막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분야별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법적・제도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차 기본계획 기간 중에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95개 세부과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해 78개 과제,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을 위하여 58개 과제,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과제 등 총 4개 분야의 231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6년 이후 계속 3차, 4차, 5차 5개년 기본계획을 수행하여 2030년에는 OECD 국가의 평균수준의 출산율을 회복하여 교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예산상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GDP 대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만으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0.4%로 고령화율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낮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서 한국개발연구원의 황수경(2012)은 정년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주장을 했다. 결국 고령화 대책으로 가장 의지하는 것이 기업이다. 정부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일명 '고령자고용촉진법)을 만들어서 정년연장 정책을 추진했으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도 지원했다. 그러나 기업의 경쟁력을 고려해 볼 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가 고령층의 고용을 어느 정도 유도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이는 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둘째는 저출산 분야는 보육지원 부문에 편중되고, 고령화 분야는 기초노령연금에 편중 되는 등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 셋째는 기업 등 민간부문의 참여가 부족해서 효과가 적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림 1] OECD 주요국 사회복지지출 규모 비교
자료: 한국자료는 보건복지부(2011) ; OECD 국가별 자료는 OECD(www. oecd.org)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09년 자료임 (2013년 9월 현재).

제1차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과 기업의 협조를 통해서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역시 1차 기본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정부도 역시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고령화 사회문제의 핵심을 경제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즉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서 경제성장 동력과 고령층의 노후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해법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기업으로 하여금 고령층의 고용을 높여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나 정부 정책의 대부분이 정부나 기업 차원의 대책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있다. 이 사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경희 외, 2011)의 “베이비 붐 세대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정책수립 방향 연구”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 방향은 경제활동, 사회참여활동, 안정적인 노후 소득, 건강한 노후생활, 주거 안정, 노후 설계, 고령친화산업 등으로 나누어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는데, 여기에 주로 정부나 기업의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가족가치, 공동체 의식 함양, 신앙심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의 중요성 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IV. 고령화 현상과 세속주의 그리고 기독교적 대안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한 학계와 연구소 및 정부의 연구나 대책은 대부분 인구고령화의 문제를 경제적 문제로 인식하고, 경제적 해결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임기응변적이고 부분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고령화 문제의 원인은 세속주의 확산에서 비롯되었으며, 따라서 그 해결책도 세속주의 확산을 저지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최근에 기독교 학계에서도 인구고령화와 관련되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독교학계에서 고령화사회에 대한 연구는 주로 노인목회와 전도에 치중되어 있다. 노인 목회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기독교의 이웃과 사회에 대한 봉사로서의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노인 목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연구가 가장 많다(성열준, 2008; 이남순, 2008; 정신복, 2006; 설은주, 2005; 이은규, 2002, 김학영, 2002). 또한 교회성장적 측면에서 노인목회에 관심을 가진 연구나(이종대, 2009; 김성은, 2009; 고양곤, 2002; 모선희, 2002; 안창천, 2006; 남성현, 2007; 박종운, 2003), 노인의 비중이 높은 농촌지역에서의 노인목회에 대한 연구(이강석, 2007, 임윤건, 2010)가 주류를 이룬다. 노인목회를 다룬 논문들은 대체로 노인목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프로그램들은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빈곤, 질병, 고독, 무료함 등을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건강지원이나 보호를 위한 봉사 프로그램, 급식배달지원 봉사 프로그램 등 지원 프로그램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학교가 많이 소개되고 있다(김성은, 1997; 방현덕, 1986; 이언구, 2005). 또한 노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봉사도 소개되고 있다. 노인들은 육체적으로는 약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은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므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목회자들의 연금문제 등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각 교단별로 자기 교단의 목회자들의 연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불교에서도 '승려복지법'도 만들고 '노후 수행마을' 도 조성하고 있다.

반면에 사회일반에 대한 고령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독교계에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역교회의 자원을 가지고 교회 내부의 노인목회, 노인학교 등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데도 사용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기독학자들의 관심이 선교나 전도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사회변혁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002년에 개최된 제19회 기독학문학회였다. 여러 기독학술단체들이 연합하여 고령화에 관한 주제를 사회봉사, 경영, 의료, 경제, 교육, 사회복지 분과로 나누어서 논문이 발표되었다. 장지연(2002)의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문제점," 맹용길(2002)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신학적 고찰," 김동배(2002)의 "고령화 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 등이 기조발표로 있었다. 각 분과발표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강춘근, 2002), 노인복지 서비스(전광현, 2002), 노동력의 연령구조변화(배종석, 2002), 실버산업(황호찬, 2002), 노인보건정책 (이윤환, 2002), 생명(백은성, 2002), 사회보험제도(김원식, 2002), 고령화 사회변화와 교회 사명(이우성, 2002; 이우성, 2006), 건강위한 노인체육(배성민, 2002), 노인에 대한 인식변화(이기양, 2002), 여성노인복지정책(성시린, 2002) 등이 발표되었다. 그 후 조성돈(2005)의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성경적 접근"도 이러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에서 2006년에 "한국교회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라"는 제목으로 2020년 미래교회와 선교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박찬식・이우성 편, 2006). 여기서 이우성(2006: 208, 211)은 농촌인구의 감소추세로 인해 농촌지역의 노인에 대한 선교가 어려움을 대비하여 도시지역 교회와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독학자들의 연구를 촉구하고 교회 고령화의 문제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회개를 촉구하였다. 특히 이우성(2006:204-209)은 가족해체와 공동체적 가치관의 파괴가 고령화 사회 문제의 핵심임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제외하고는 고령화를 세속주의 확산의 결과로 규정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절에서는 고령화 현상의 원인과 문제점이 세속주의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살펴본다.

1. 저출산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

1) 저출산의 원인과 세속주의(secularism)

인구고령화 문제의 원인은 출산율 하락과 평균 수명 증가 때문이다. 먼저 출산율을

보면, 2011년에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은 아이의 수는 1.23명으로 세계 222개국 중 217위 수준이었다. 지난 2012년에는 합계출산율[16]이 1.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11년 만에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17] 한국은 지난 2001년 이후 11년 동안 초저출산 기준선인 1.3명 이하를 유지했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3). 현재의 국력을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평균 1.8명, 그리고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려면 평균 2.1명까지 올라야 하는데,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이다. 과거 고도성장기에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 높은 교육비가 소요되는 교육구조, 복지의 미비, 맞벌이 부부의 증가, 개인주의 팽배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빠르게 떨어졌다. 현행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베이비붐 세대가 다 은퇴하는 2018년 이후에는 잠재성장률이 2%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염려하면서, 대부분의 연구나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떠한 지원책이 필요한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쉽게 오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출산율의 회복이 더딘 이유는 저출산율의 근본 원인에 대한 깊은 통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경희 외 (2012)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의 원인으로 “인구학적 변화, 개인주의, 세속화, 다원주의와 같은 문화적 변화와 더불어 세계화, 노동유연성과 같은 경제적 환경의 변화, 보건의료기술 및 정보기술 등의 기술적인 발전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가족정책을 비롯한 사회정책” 등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세속화가 여러 원인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가족이 다양화되는 원인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등의 출산율이 하락하게 된 근본 원인은 세속주의(secularism)의 영향이 가장 크다. 먼저 세속주의(secularism)를 세속화(secularization)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세속화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신학에 따라 긍정적으로도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세속화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화되면서 교회의 세속화가 시작되었다는 주장이나, 사회가 종교의 도덕적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물질주의적이고 현세적으

16)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임신이 가능한 기간(15~49살) 동안 낳는 자녀의 수를 의미한다.
17)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해서 결혼과 출산 및 육아에 드는 비용을 줄였기 때문으로 해석을 했다.

로 변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세속화를 근대화와 함께 시작된 부정적인 것으로 본 연구 중에 선구자적인 것으로는 위컴(Wickham, 1957)을 들 수 있으며, 이 밖에 길버트(Gilbert, 1980)와 커리 외(Currie, Gilbert and Horsley, 1977) 등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커리 외의 연구(Currie, Gilbert and Horsley, 1977)는 예배참석에 대한 방대한 통계자료를 제시한 대표적인 반세속화 연구이다. 반면에 칼 바르트(Karl Barth),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하비 콕스(Harvey Cox), 미국의 세속화신학과 사신신학 등은 세속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이정석, 2011). 개혁주의 기독교계에서도 기독교를 교회에 가두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인식하기 때문에 세속화를 긍정적인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심상태(1996: 10)는 '세속화(secularization)'를 "세속적'(secular) 세계가 더 이상 종교의 섭정 하에 실재의 신적이고 종교적 의미부여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유하고 결정을 할 때에 도달된 역사과정"으로 규정한 반면에, '세속주의(secularism)'는 "'차안적' 실재관과 생활양식들의 침투를 통하여 형성된 반종교적 내지 반그리스도교적 세계관"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기독교계에서도 세속화는 가치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반면에 세속주의는 이데올로기화된 것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심상태, 1996: 10). 따라서 본 논문에서 세속주의란 부정적인 의미로 이데올로기화된 세속화를 의미한다.

세속화 현상은 인류발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고대사회에도 지배적인 종교규정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있었으며, 특히 "근세에 이르러 서방세계 안에서 인간적 실재의 여러 영역이 종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영향권으로부터 이탈함으로써 세속화 과정이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심상태, 1996: 11)"되었다. 이렇게 서구에서 시작된 세속화 경향은 20세기에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반대로 종교적 신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 영역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회가 물질주의, 과학만능주의, 부정부패에 대한 불감증, 인명 경시와 사치 풍조, 쾌락추구 등의 경향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것을 세속주의로 규정하였다.[18]

전통적인 서구의 기독교 사회에서 교회는 고령자의 정신적 평온에 영향을 미쳤으며,

18) 이러한 세속화 이론(the secularization theory)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종교사회학자들과 사회학자들 중에 압도적 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으므로(류대영, 2002: 21-22), 본 연구에서도 이를 수용하였다.

자선병원 등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했다(Thane, 2005: 386). 그런데 19세기 이후 서구를 중심으로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성장과 함께 세속주의가 확산되고, 종교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이 세속주의 경향은 가족제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해체된 것이다. 류대영(2002: 22)은 로이 월리스와 스티브 블루스(Roy Wallis and Steve Bruce, 1992)를 인용하여 "근대화 과정 가운데 세속화 이론과 특별히 관계있는 현상은 사회적 분화(social differentiation), 사회화(societalization), 그리고 합리화(rationalization), 세 가지"라고 했다. 산업화로 인해 파편화된 사회 계층은 교회를 멀리하고, 좀 더 개인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일종의 반란을 일으켰으며,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역할을 분화시켜 남성은 일과 세상을 지배하고, 여성은 가정과 종교로 역할을 한정시키는 사회적 분화가 일어났다. 이는 남성들을 종교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다. 다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여성들이 가사노동에서 해방되면서 일터에 나오는 현상이 20세기에 일어나면서 핵가족으로 발전했다. 류대영(2002: 28)은 미국에서 청교도공동체는 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소규모 신정국가(theocracy)였다고 할 정도로 공동체의 삶이나 집단적 자아정체성을 중요시했는데,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붕괴되어갔음을 지적했다. 예전에는 적령기가 되면 결혼을 해 자녀를 많이 낳고, 아이들도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삼촌, 외삼촌, 이모, 고모 등 친족이라는 인간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노인도 그 안에서 손자를 양육하는 등 일정한 역할이 있었다. 그런데 인류학에서 '신거제가구(neolocal household)'[19]라고 일컫는 핵가족화 된 현대 사회에서 '빈 둥지 증후군(empty nest syndrome)'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생겼다. 나아가 이혼의 급증으로 인하여 편부모가족, 입약가족, 계부모가족, 심지어 동성애 가족까지 다양한 가족제도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중반까지는 일부 보수적 종교지도자나 정치적 지도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낙관적인 견해를 가졌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위기로 보는 견해가 많아졌다(이혁구, 1999: 222). 이 위기론에 의하면 가장 큰 문제는 아동의 양육과 노인의 부양문제이다. 복지 선진국에서 노인부양을 사회화했으나 엄청난 복지비용뿐만 아니라 복지의 질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을 개인주의가 가족에까지 침투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이혁구, 1999: 223).

19) '신거제가구'란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와 새로운 가정을 꾸민다는 의미이다 (Diamond, 2012: 330).

핵가족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자녀양육비가 부담이 되고, 부모는 자녀양육을 비용편익분석에 의해서 선택할 사항으로 여기게 되었다. 슘페터(Schumpeter, 1942)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근대화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근대시대의 특징인 합리성의 추구는 인간으로 하여금 비용편익분석에 의해서 모든 판단을 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서 가족 사이에도 효율성에 기초한 판단을 하게 되어서, 가족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책임의식이 줄어들게 되었다. 가족 간의 사랑은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매우 큰 효용을 지니며, 사랑을 동반한 가족 간의 희생은 다른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게 느껴지기 마련인데, 이러한 비용과 편익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삶의 본질을 망각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서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주어도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합리적 사고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가져오고, 이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종교의 효용성을 축소시켰다(류대영, 2002: 29). 게다가 냉전체제 하에서 공산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구 자본주의는 복지국가이념을 확산시켰는데, 이것이 종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정부의 복지를 의지하게 만들었다. 복지국가 이념은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었으며, 이것이 전통적인 가족과 종교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가족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가치는 파괴되었으며, 가족의 가치를 궁극적인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개인 행복의 수단으로 여기게 되었다(이혁구, 1999: 224). 노인에 대한 복지를 국가에 떠넘김으로 말미암아, 노인에 대한 공경과 의무는 사라지고, 해체된 가족관계에서 노인의 역할도 사라졌으며, 고령층의 인간관계도 파괴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복지 수요가 더욱 증가하였다. 게다가 가족의식의 약화는 독신을 부추겼으며, 이는 다시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인구고령화 추세를 더욱 가속시켰다. 이제는 혼자 사는 1인세대가 2가족세대의 비율을 넘어서 25.3%에 이르렀고(2012년 기준), 심지어 동성가족도 생겨났다. 동성이 결혼하면 자녀도 못 낳고, 가족의 근본이 흔들린다.

가족의 해체는 출산율을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노인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유용성이 없는 외로운 존재가 되어서 자아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노년기를 우울하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안되며, 병들고, 가난하고, 각종 욕구가 사라진 존재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고령층의 자아정체성 상실의 문제는 경제성장률 둔화 등 경제적인 문제 못지않은 큰 문제이다. 고령층의 경제 문제가 해결

되었다고 해서 고령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서구의 세속주의는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전통적 가정관이 무너지고 있다. 한국의 자녀들도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와 미래에셋증권이 실시한 “은퇴에 관한 국민여론조사(조선일보, 2005)”에 의하면 자녀가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한국의 경우에는 26.9%에 불과했는데, 이는 중국(64%)이나 일본(36%)은 물론이고, 프랑스(38%)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돌보는 유교적 전통은 평균수명이 겨우 35세 정도로 낮았던 전통사회에서는 자식계층의 부담이 적었기 때문에 지켜질 수 있었지만, 평균수명 80세가 넘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개인주의의 확산, 급속한 도시화, 국가의 역할의 확대 등으로 인해 부모 봉양을 자녀의 의무라기보다 국가의 의무라는 의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해결할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출산율은 떨어지고, 고령층은 노후가 불안해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족해체로 인한 고령층의 인간관계의 단절이다.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독거노인의 문제들이 선진국에서조차 고령화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서는 ‘격차사회,’ ‘네트카페 난민,’ ‘무연사회’ 등의 특집 다큐멘터리를 연이어 방영하며 고령화로 인한 부작용들을 고발하고 있다. 또한 폭주노인, 망주(妄走)노인, 고족(孤族), 코슈족(孤舟族)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고령층을 묘사하고 있다(전영수, 2011: 100-116). 또한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에서 생활보호중지로 굶어죽은 사람의 일기장에 주먹밥 하나를 먹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적은 것이 알려져 일본열도가 충격에 쌓이기도 했다(NHK 무연사회 프로젝트 팀, 2012).

공동체 성향이 강한 문화에서 뒤쳐진 사람은 가정이 튼튼하지 못할 경우에 더 심한 외로움과 절망에 빠지기 쉽다(전경숙 외, 2012). 퇴직 후 시간은 넘쳐나는데, 갈 곳은 없다. 친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일본이나 한국은 친구관계도 튼튼하지 못하다. 친구와 만남이 거의 없는 비율이 캐나다,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서구사회는 5-10%에 불과한 반면에, 일본(34%)과 한국(22%)은 매우 높다. 일본 정부에 의하면 혼자 사는 65세 이상 남자의 40%는 절친한 사람이 없고, 25%는 이웃과 대화조차 나누지 않는다(Klinenberg, 2012: 212-215).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 많다보니 매년 3만 명이 넘는 자살자 가운데 노인이 1/3을 차지하며, 특히 남자가 73%라고 한다. 심지어 후지산 주변

삼림지대는 '자살 숲'이라는 별명까지 붙어있다(Fishman, 2011: 214).

이와 같이 고령층의 소외 문제는 정부가 억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정부는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부모가 자식을 고소해 생활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했다. 자녀가 최소한 2주일에 한번 방문하지 않으면, 경고를 받고 그래도 가지 않으면 7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20] 중국은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도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한국은 이런 강제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 저출산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

바울은 로마서(12:2)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다. 저출산과 고령층의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독교적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성경이 부모와 노인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리한다. 성경은 제5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 20:12; 레 19:3)고 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장수를 약속하고 있다. 특별히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신 5:16)"고 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땅위에서의 생명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다. 반면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출 21:17)."라고 하여, 축복과 함께 이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 엄벌하겠다고 했다. 또 잠언(23: 22)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여기지 말지니라."고 명령하고 있다. 또한 에스겔(22:7)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벌을 받은 이유를 고아와 과부를 해치고, 노년의 부모를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성경은 또한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딤전 5:1-2)" 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 초대교회도 늙은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노인을 지혜의 원천으로 묘사한다. 욥(12:12)은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고 말하였다. 모세는 "옛날을 기

20) 심지어 60대의 린 부부는 매달 최소한 2번 찾아오는 자식에게는 1,000위안을 주기로 하고, 손자를 데리고 오면 보너스까지 준다(Fishman, 2011: 412).

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신 32:7).”라고 하면서 노인을 전통을 이어가는 수호자로서 인정하고, 젊은이는 노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교훈한다. 교회사에서 볼 때, 교회에서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는 대체로 노인이었다. 지혜는 노인의 유산이었다. 또한 “장로는 노년의 권좌를 말하는 것으로 종교적 기능에서 지도자였던 것은 물론 가족과 부족장의 장(長) 위치에 있었고, 싸움의 지휘관으로, 재판관으로, 권면자로, 그 공동체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이은규, 2002: 57-77).” 그래서 고대 히브리 사회는 노인이 전권을 행사하는 정부라는 의미의 ‘장로정부(gerontocracy)’라고 불려졌다(Diamond, 2012: 342).

저출산의 원인이 가족의 해체 등 세속주의의 확산에 있음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Bellah, et. als. 1985; Lasch, 1979; Blankenhorn, et. als. (ed.), 1990; Popenoe, 1993; Glenn, 1991). 또한 인구구조와 종교적 신념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종교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출생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Bader et. al., 2006). 롱맨(Longman, 2006)은 종교적 신념은 다자녀 가족을 꾸리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주장을 하며, 따라서 종교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다자녀 가족을 중요시하여 출산율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증거는 미국 유타주의 모르몬교도의 출산율이 다른 미국 전체 평균보다 25% 높으며, 이스라엘의 초정통 유대인의 수는 나머지 이스라엘 인구수보다 세 배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Magus, 2009: 338, 341). 이러한 경향은 가톨릭, 유대교, 이슬람교 등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현상이다(Friedman, 2009: 92). 메디슨(Maddison, 2001)의 연구에 의하면 11세기부터 18세기까지 아시아 인구가 두 배 이상 증가해 전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슬람교가 13세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 이유는 이슬람지역의 인구 구조가 주된 요인이었다고 주장한다. 매그너스(Magus, 2009: 343)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것도 기독교인들이 병든 사람들을 정성스럽게 돌보아 사망률이 낮았으며, 정절을 지키고 가정을 중요시하여 매력적인 종교가 되었으며 이것이 다시 출산율을 높이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기독교 집단의 인구 구조의 영향이 컸음을 지적한다.

다이아몬드(Diamond, 2012: 351-355)는 고령화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노인의 전통적 역할의 중요성을 살리자는 것이다. 둘째는 급속한 변화로 노인의 경험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귀하게 되었다는 점을 활용하자는 것이

다. 마지막으로 노인이 젊은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속성, 즉 “한 분야의 경험, 인간과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지 않고 타인을 돕는 능력, 다면적인 요인들이 개입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사고력 등과 같은 유익한 속성”을 활용하자고 제안을 한다.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제안하는 방안들은 가족을 중시 여기는 전통을 회복하면 해결되는 문제들이다.

개인주의로 파편화된 오늘날 장수를 쇼크 또는 리스크라고 여기지만, 가족이 회복된 사회에서 성경은 장수를 복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 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창 15:15).”라고 하면서 장수가 복임을 말하고 있다. 솔로몬도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잠 20:29).”고 하였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를 정부가 세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서구식 복지국가는 후퇴하고 있다. 복지비용도 문제이지만, 정부에 의한 복지에 대한 만족감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서구 복지국가에 비해서 복지비 지출이 낮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의 힘으로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 국가의 역할과 함께 가족의 회복이 병행되어야 바람직하며, 이것이 기독교적 대안이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정부 정책은 가정이나 교회 등 종교기관의 역할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이 1930년대 말에 입학한 2학년생 268명의 삶을 72년 동안 추적하면서 행복한 삶의 공식을 추정한 연구에 의하면 건강한 노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 유대관계였다. “훌륭한 사회적 유대관계라고 하면 아내, 자녀, 형제, 놀이친구, 종교모임, 사교 모임, 절친한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Vaillant, 2002: 281).” 이지현・한경혜(2012)의 연구에서도 노년층의 친구 관계망이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이 있다. 그런데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이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저출산과 고령자 소외문제의 기독교적 해결책이다.

2. 평균수명 증가와 기독교적 대안

1) 평균수명의 증가와 세속주의의 가속

인구고령화의 두 번째 원인은 평균 수명이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대수

명은 2011년 출생자 기준으로 남자가 77.6세, 여자가 84.5세로 발표되었다(통계청, 2013a). OECD 자료에 의하면 이미 2009년에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OECD 32개국 중 일본·스페인·스위스·프랑스·호주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21] 우리나라는 위생과 공중보건 혁명으로 인해서 지난 60년 만에 평균 수명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각종 백신의 보급으로 영아 사망률이 크게 떨어지고, 상하수도의 정비 등으로 수인성 전염병이 거의 사라졌다. 게다가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 각종 암과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병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서, 조기 발견만 하면 대부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간, 심장, 신장 등은 물론이고 기술적으로 쉽지 않았던 폐와 췌장의 이식 성공률도 매우 높아졌다.

그런데 고령층의 복지수요 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고령화 추세가 이렇게 과거와 같은 속도로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를 전제로 몇 년 정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고 잠재성장률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서 연금 등 사회보장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커즈와일(Kurzweil, 2005: 132)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현대 사회는 세계적으로 위생, 암 정복, 장기 이식, 호르몬 요법, 유전자 치료 등 5단계 수명혁명이 급속하게 진행 중에 있다. 현재는 이 5단계 수명혁명의 초기에 불과하다. 줄기세포(stem cell)로 인한 의약혁명, 유전자지도(게놈지도) 완성으로 인한 유전자 치료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10년 걸리던 개인의 유전자해독도 하루 만에 가능하다. 이것이 인간의 수명에 미칠 영향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인공지능 의족(義足)과 의수(義手)에 대한 연구는 이미 활용단계에 들어섰다.[22] 원숭이 대상 실험에서 머리와 몸 교환 수술이 성공했다. 뇌파만을 이용해서 트위터(Twitter) 메시지를 보내는 '블루 브레인 프로젝트(Blue Brain Project)'도 성공했다. 헨리 마크람(Markram)은 10년 안에 인간의 뇌 구조 설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뇌과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신마비 환자가 생각만 해도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로봇 팔다리, 줄기세포로 복제한 장기, 그리고 뇌마저 만들 수 있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 인간 1.0에 이어서 인간이 개량한 휴먼 사이보그 인간 2.0이 가능하다.

---

21)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캐나다와 이탈리아 제외.

22) 일본의 사이버다인사는 길을 걷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세미로봇 외골격을 14,000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로봇옷을 입으면 200Kg의 물건을 마치 10파운드처럼 느끼고 옮길 수 있다(Fishman, 2011: 282).

커즈와일(Kurzweil, 2005: 26)은 기술에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세기의 중반이 되기 전에 인간이 죽음도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시점을 ‘특이점(the singularity)’이라고 불렀다.[23] 이러한 주장은 단지 레이 커즈와일 뿐만이 아니다. 조너던 와이너(Weiner, 2010)는 『과학, 죽음을 죽이다』에서 커즈와일의 주장이 40년 내에 현실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책에서 케임브리지대학교 노화이론가 오브리 데비드 니콜라스 드 그레이(Aubrey David Nicholas Jasper de Grey)도 “인간의 수명이 앞으로 500년 그리고 이어서 1,000년으로 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시대가 올 때까지 살 수 없는 고령자들을 위한 냉동인간 서비스도 시작되었다. 로버트 에틴거(Ettinger, 1961)의 인체 냉동보존술을 기초로 한 냉동보존서비스가 상용화되어 미국 미시간주 ‘냉동보존재단(Cryonics Institute·CI)’에 103구, 애리조나주 ‘알코어 생명연장재단(Alcar Life Extension Foundation)’에 104구, 러시아 ‘크리오러스(KrioRus)’에 223구가 보존되어 있다.

이러한 유전공학, 나노기술,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의 혁명적 발전을 고려하면 고령화의 문제는 정부가 단순히 예산지출을 늘리고 기업에게 고용을 연장하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실현되는 가까운 장래에 전 지구적인 인구폭발, 빈부격차 등 우리가 전혀 예상하기 힘든 새로운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낙관주의적 과학주의자들은 인간사회를 더욱 세속화로 몰고 간다. 20세기에는 정부가 복지를 책임지므로 종교와 가정의 역할이 파괴하고 세속주의를 확산시켰는데, 21세기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더욱 인류를 세속화 시켜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새로운 과학기술 종교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커즈와일(Kurzweil, 2005: 6장)은 소화기, 혈액, 심장, 혈관 등을 다시 설계하고, 뇌까지 재설계하는 휴먼 2.0의 단계를 넘어 휴먼 3.0의 단계에서는 모든 신체를 쉽게 바꿀 수 있는 단계에까지 나간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육체는 모두 비생물적 존

23) 특이점이란 “미래에 기술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그 영향이 매우 깊어서 인간의 생활이 되돌릴 수 없도록 변화되는 시기를 뜻한다(Kurzweil, 2005: 23).” 미연방우주항공국(NASA)과 구글은 합작해서 세운 과학기술대학의 명칭을 Singularity University로 붙였고, 커즈와일을 초대 총장으로 임명했다.

재가 되고, 인간의 모든 과거 경험은 뇌를 백업시켜서 새로운 육체에 넣음으로써, 인간의 정체성은 육신이 아니라 뇌에 저장된 소프트웨어가 된다는 것이다. 현재 인간도 피부나 머리카락이 한 평생 세포의 사망과 탄생으로 유지되듯이 인간의 하드웨어는 계속 바뀌고, 인간 마음 파일은 불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적 철학자들의 주장과 유물론자들의 주장이 커즈와일 뿐만 아니라, 마빈 민스키(Marvin Lee Minsky, 2007), 대니얼 데넷(Daniel C. Dennett, 2003), 페트리샤 처치랜드(Patricia Churchland, 1989)등 현대의 유물론자들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제 인간이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육신을 비생명체로 바꾸고, 뇌에 저장된 기억을 옮기고 재생하여 원하는 기간만큼 보관 유지시킴으로써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내세나 신이 필요 없다는 무신론으로 연결이 된다. 오직 인간에게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돈만 필요한 것이다. 이는 세속주의와 현세주의의 극치이다.

2) 평균수명 증가와 기독교적 대안

의료혁명과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고령화 현상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논쟁의 새로운 출발이 되고 있다. 계몽주의 시대이후 다윈주의로 인해서 촉발된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에 벌어진 기원논쟁은 이제 죽음을 둘러싸고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다윈의 진화론은 조지 윌리엄스(George C. Williams)에 의해서 자연선택이 유기체 전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를 선택한다고 하는 유전자 선택이론으로 발전했다. 이 이론에 의하면 “특별한 종류의 유전자들이 재생산과 생존에 유리한 기관을 생성하며 향상시킴으로써, 생존 가능성을 스스로 높이고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자연 선택으로 인해 자기 유전자를 후세에 잘 전달하는, 생산 능력이 뛰어난 유전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Johnson, 1997: 78).” 이 유전자선택이론은 리처드 도킨스(C. Richard Dawkins)나 스티븐 굴드(Stephen Jay Gould) 등에 의하여 창조론을 비판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 여기에 뇌과학자들이 가세하면서 인간 정신을 단순한 뇌 작용의 산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들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물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DNA 유전코드의 발견으로 생명이 있는 물질이나 생명이 없는 물질은 마찬가지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앞에서 언급한 유전공학, 나노기술,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 등의 혁명적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지 사회적 윤리적 판단이 남았을 뿐이다. 에틴거는 냉동보존술을 과학기술을 활용해 인간의 정신적·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문화적 운동이라고 해석한다. 감염환자가 페니실린을 거부하지 않듯이, 젊고 아름답게 해줄 약이 있다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며, 과학기술에 의해 부활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땅에 묻혀 썩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한다.

사실 이런 수준까지 생명의료과학기술이 발전한다면 지상의 삶을 버리고 천국에 가겠다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반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인간의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죽기 전에 종교에 귀의하는 경우가 많다. 카우프만(Kaufmann, 2007)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종교적 성향이 높아지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되면, 돈으로 지상에서의 생명을 연장시키려 할 것이다.

그런데 생명연장에 필요한 비용이 누구든지 원하면 가능할 정도로 낮아질 것인가? 이에 대해서 커즈와일(Kurzweil, 2005: 654)은 기술의 가격대 성능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기술들이 매우 싸져서 공짜나 다름없게 되리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라니어(Lanier, 2000)는 이런 기술들은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며, 그럴 경우 빈부간의 사회적 위화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언젠가는 커즈와일의 주장처럼 모든 사람이 무료로 그런 첨단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때까지는 상당한 기간 동안 극심한 빈부격차로 사회가 심각한 갈등을 겪을 것이다.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빈부갈등이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그러나 부자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럴 수 없다면 그러한 사회에서는 빈부격차를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내세를 수용하는 종교적 신념은 사람들로 하여금 빈부격차에 대해서 비교적 관용할 수 있게 만든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죽는 것에는 차이가 없고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빈부격차가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좋은 음식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와 직접 연결된 것이라면 빈부격차에 대해서 자본주의 사회와 같은 아량을 보일 수 있을까? 냉동보존회사 '알코어'는 20만 달러짜리 '전신 냉동'과 8만 달러짜리 '뇌 냉동'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뇌만 냉동하는 상품

이 있는 것은 뇌에 저장된 기억과 정체성만 보존하면 나머지는 인공장기나 이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기술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낮아서 누구든지 원하면 가능하지만, 이것이 실현되었을 경우에는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므로 그때에 발생할 사회적 위화감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24]

이 위화감을 극복하는 방법은 커즈와일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짜로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주장은 마치 마르크스가 생산성이 고도로 발전하면 누구든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 갖는' 이상적 공산사회를 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과학주의이다. 이기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이 지상에서는 결코 그러한 이상사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인간은 단지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다. C. S. 루이스(Lewis, 1952: 51-52)는 이 우주가 무엇이며 어떻게 발생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결국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첫째는 물질과 공간이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유물론적 관점과 우주의 배후에는 정신(mind)과 비슷한 무언가 있다고 하는 유신적 관점이라고 했다. 유전자 선택이론은 정신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물질로 환원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물론적 환원주의(reductionism)에 불과하다.

필립 존슨(Johnson, 1997: 80-81)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처럼, 또는 소설책과 소설처럼, 물체와 정보는 두 개의 존재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다. 매체와 메시지는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요한복음(1:1)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된다. 이 구절에 대해서 필립 존스(Johnson, 1997: 81)는 "이것은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묘사하는 바로 그 방식이다. 처음에는 저자나 프로그래머, 설계자의 정신 속에 담긴 개념과 그 개념에서 나온 활동이 있다. 그러고 나서 개념이 물질 속에 기록되거나 실현된다. 물질은 중요하지만 부차적인 것이다. 말(정보)은 물질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보다 앞선다."고 했다.

---

24) 가난한 사람은 뇌만 보존했다가 전신을 기계로 사용하고, 부자는 전신을 보존해서 자기 신체를 사용하고 그런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 부자는 젊은 시절의 모습을 회복하고 가난한 사람은 늙은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

유물론자들의 주장처럼 이 세상은 물질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정보가 물질로 환원되지 않듯이 생명의 기원을 이야기 하려면 정보의 기원도 설명해야 한다. 생물의 세포에 있는 복잡하고 상세한 정보는 우연히 생성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생명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서 인간의 수명을 늘린다고 해도 인간의 정신에 대한 기원은 밝힐 수 없고, 이 지상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물질을 초월한 천국의 소망을 대신할 수는 없다.

유물론자들은 행복을 지상에서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 죽음으로 그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죽음을 극복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은 물질계를 넘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다. C. S. 루이스는 "낙원을 향한 제 갈망이 앞으로 제가 낙원을 누리게 됨을 보증하진 못하지만, 그 갈망은 어딘가 낙원이 존재하며 누군가는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임을 보여 주는 썩 훌륭한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녀를 반드시 얻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녀가 서로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Lewis. 1949: 19-20)."라고 하면서, 이 갈망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천국이 있는 증거라고 했다.

생명과학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고령화사회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수명이 값싸게 연장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고 해서 소외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어거스틴 이후 수많은 신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은 신 안에 거하지 않는 한 안식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Dembski, 2002). 기독교는 사회에 이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설득해야 한다. 이것만이 고령화로 인하여 소외되는 고령층에게 진정한 해결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제시해야 한다.

성경의 기적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자유주의신학이나, 현세적인 현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세속화 신학은 생명연장기술의 등장이라는 도전 앞에 무기력해진다. 인간은 육적인 존재를 넘어 영적인 존재이며, 물질세계의 너머에 영적인 세계와, 심판과 낙원이 존재한다는 성경의 진리가 강조되어야 한다.

VI.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나 학계의

대책은 주로 경제적인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왔다. 그러나 저출산 경향은 세속주의 확산의 결과이므로 전통적인 가치관을 회복함으로써 근본 원인을 치유할 수 있다. 가족이 파괴되고 정부에 의한 복지로 고령화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가정과 교회의 영역을 돈과 정부가 대체하려고 하는 세속주의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합리주의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인간의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과학의 힘과 돈으로 육체적 생명을 연기하려고 하는 시도는 한계가 있다. 세속주의의 확산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점과 따라서 종교의 역할이 고령화 시대에는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 강조한 것은 첫째, 세속주의 확산 추세를 바로잡기 위해서 가족의 회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구는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가족이 해체되고 복지를 국가에 떠넘기고 있으며, 이것이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고령층에게도 각종 소외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서구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가족주의 전통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윤리가 시급히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고령화에 대한 해결책은 고령층의 경제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고령층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역시 가족관계의 회복이나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둘째, 내세에 대한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다. 합리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현세가 강조되고, 내세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현세에 대한 강한 집착이 생기고, 이것이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기독교 학계는 건강한 사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의 힘이 더욱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음을 사회에 설득해야 한다.

기독교는 고령화현상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가족의 강조와 내세에 대한 확신을 다 제공하고 있어, 정부와 기업 중심의 현행 고령화 대책이 해결하지 못하는 비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영철(2011)은 “미혼율의 상승과 초저출산에 대한 대응방향”에서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의 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동거와 혼외출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즉 동거와 혼외출산이라는 비도덕적 대책이 실용적이라는 이유로 국책연구소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서 기독학자들이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당면한 문제해결에 급급해서 이러한 비성경적

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대안들을 수용하게 될 것이고, 점차 기독교의 가르침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신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 및 연구소의 기독학자들이 각자의 연구를 기독교적 가치관 하에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극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생명공학의 문제는 윤리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는 장래 사회체제에 대한 문제이다. 지금은 자본주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미래가 현실화 되면 다시 공산주의로 회귀할 수 있다. 기독교 학자들은 기독교 연구재단이나 고령화사회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러한 미래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학교, 복지시설 등은 지역교회에서 할 수 있지만, 막대한 연구비가 소요되는 이러한 연구는 개교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비를 정부에서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전 기독교계가 연합해서 마련해야 한다. 기독교계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에 기초하여 연구를 하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가 비성경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더욱 교회의 입지는 좁아지며 한국 교회의 장래를 어둡게 할 것이다.

또한 사회에 대해서도 기독학자들은 노년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영원에 대한 갈망이 커지는데, 이를 물질적으로는 해결을 해 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다시 중요함을 설득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여 기독교적 대안으로 제시한 실질적인 가족의 회복 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앞으로 가족학 연구자와 협동하여 경제학과 가족학간의 학제간 연구가 진행되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학자와 함께 자유주의신학에 대한 비판이 함께 병행하면 더 좋은 논문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다음 연구 과제로 남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Bader, Christopher D., Carson Mencken and Paul Froese (2006). "American Piety in the 21st Century: New Insights to the Depths and Complexity of Religion in the US." Texas: Baylor University Institute for Studies of Religion.

Bellah, Robert N. Richard Madsen, William M. Sullivan, Ann Swidler, Steven M. Tipton (1985). *Habits of the Heart: Individualism and Commitment in American Lif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lankenhorn, David, Steven Bayme and Jean Bethke Elshtain (ed.) (1990). *Rebuilding the nest: a new commitment to the American family*. Family Service America.

Bruce, Steve (ed.) (1992). *Religion and Modernization: Sociologists and Historians Debate the Secularization Thesis*. Oxford.

Churchland, Patricia (1989). *Neurophilosophy: Toward a Unified Science of the Mind-Brain*. 박제윤 역 (2006).『뇌과학과 철학: 마음 뇌 통합 과학을 위하여』. 서울: 철학과현실사.

Currie, Robert, Alan. D. Gilbert, and Lee S. Horsley (1977). *Churches and Churchgoers: Patterns of Church Growth in the British Isles since 1700*. Oxford: Clarendon Press.

Dembski, William Albert (2002). "Kurzweil's Impoverished Spirituality." in Richards et al. *Are We Spiritual Machines? Ray Kurzweil vs. the Critics of Strong A. I.* Seattle : Discovery Institute Press.

Dennett, Daniel C. (2003). *Freedom Evolves*. 이한음 역 (2009).『자유는 진화한다 : 자유의지의 진화를 통해 본 인간 의식의 비밀』. 서울: 동녘.

Diamond, Jared (2012). *The World Until Yesterday*. 김주헌 역 (2013),『어제까지의 세계』, 서울: 김영사.

Drucker, Peter F. (2007). *Managing in the Next Society*. 이재규 역 (2007).『넥스트 소사이어티』. 서울: 한국경제신문.

Ettinger, Robert (1961). *The Prospect of Immortality*. 문은실 역 (2011).『냉동인간』. 서울: 김영사.

Fishman, Ted C. (2011). *Shock of Gray: The Aging of the World's Population and How it Pits Young Against Old. Child Against Parent. Worker Against Boss. Company Against Rival. and Nation Against Nation.* 안세민 역 (2011).『회색 쇼크: 고령화, 쇼크인가 축복인가』. 서울: 반비.

Friedman, George (2009). *The Next 100 Years*. 손민중 역 (2010).『100년 후 : 22세기를 지배할 태양의 제국 시대가 온다』. 서울: 김영사.

Gilbert, Alan D. (1980). *The Making of Post-Christian Britain: A History of the Secularization of Modern Society*. London: Addison-Wesley Longman Ltd.

Glenn, Norval D. (1991). "The Recent Trend in Marital Succes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2). 261-270.

Jackson, Richard, Neil Howe and Keisuke Nakashima (2011). *The 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CSIS).
Johnson, Phillip E. (1997). *Defeating Darwinism by Opening Minds*. 과기원 창조론연구회 역 (2000).『다윈주의 허물기』. 서울: IVP.
Kaufmann, Eric (2007). *A Dying Creed? The Demographic Contradictions of Liberal Capitalism*. London: Birkbeck College.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1). "베이비부머(1955~63년생) 세대의 은퇴준비 연구 보고서." 2011. 12. 1. 동 연구소.
Kleinenberg, Eric (2012). *Going Solo: The Extraordinary Rise amd Surprising Appeal of Living Alone.* 안진안 역 (2013).『고잉 솔로: 싱글턴이 온다』. 서울: 더 퀘스트.
Kurzweil, Ray (2005). *The Singularity is Near: When Humans Trascend Biology*. 김명남・장시형 역(2007).『특이점이 온다』. 서울: 김영사.
Lanier, Jaron (2000). "On Half of a Manifesto." *Edge.* September 25, 2000. http://www.edge.org/documents/archive/edge74.html.
Lasch, Christopher (1979). *The Culture of Narcissism: American Life in An Age of Diminishing Expectations*. N. Y. : W. W. Norton & Co. Inc.
Lewis, Clive Staples (1949). *The Weight of Glory*. 홍종락 역 (2008).『영광의 무게』. 서울: 홍성사.
_____ (1952). *Mere Christianity*. 장경철・이종태 역 (2001).『순전한 기독교』. 서울: 홍성사.
Longman, Phillip (2006). "The Return of Patriarchy." *Foreign Policy* March/ April 2006.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06/02/17/the_virus_ hunters
Maddison, Angus (2001). *The World Economy: A Millennial Perspective*. Groningen: Groningen Growth and Development Centre.
Magus, George (2009). *The Age of Aging: How Demographics are Changing in Global Economy and Our World*. 홍지수 역(2010).『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늙어가는 세계의 거시 경제를 전망하다』. 서울: 부키.
Minsky, Marvin Lee (2007). *Emotion Machine: Commonsense Think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uture of the Human Mind*. New York: Simon & Schuster.
NHK 무연사회 프로젝트 팀 (2012).『혼자 살다 혼자 죽는 사회: 무연사회』. 김범수 역 (2012). 서울: 용오름.
OECD (2013).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ce." Sept. 2013.
Popenoe, David (1993). "American Family Decline, 1960-1990: A Review and Appraisa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3). 527-542.
Schumpeter, Joseph (194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변상진 역 (2011).『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서울: 한길사.
Thane, Pat (ed.) (2005). *The Long History of Old Age*, 안병직 역 (2012).『노년의 역사』. 서울: 글항아리.
Vaillant, George E. (2002). *Aging Well*. 이덕남 역 (2010).『하버드대학교 인생성

장보고서: 행복의 조건』. 서울: 프런티어.
Wallis, Roy and Steve Bruce (1992). “Secularization: The Orthodox Model.” *Religion and Modernization: Sociologists and Historians Debate the Secularization Thesis*. Oxford. 8-30.
Weiner, Jonathan (2010) *Long For This World.* 한세정 역 (2011).『과학, 죽음을 죽이다』. 서울: 21세기북스.
Wickham, E. R. (1957). *Church and People in an Industrial City*. London: Lutterworth Press.
Zaidi, Asghar (2009). *Poverty And Income of Older People In OECD Countries*. OECD.
강춘근 (2002). “노인의 사회참여와 자원봉사.” 장지연 외 (편) (2002).『고령화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서울: 기독교 학문연구소.
고양곤 (2002). “고령화 사회 노인선교의 방향.” 대전제일교회 15주년 기념 세미나 “고령화사회의 노인선교 방향” 포럼 발표자료.
권승・황규선 (2004). “노년층의 은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 거주지별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한국노년학』24(3). 69-90.
김도영 (2012). “인구고령화와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동배 (2002). “고령화 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 장지연 외 (편) (2002).『고령화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서울: 기독교 학문연구소.
김성은 (1997). “노년층의 사회 재통합을 위한 교회 노인교육.”『기독교교육 논총 2』.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김성은 (2009). “노인목회를 통한 교회 활성화방안(응암교회 노인대학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김영철 (2011). “미혼율의 상승과 초저출산에 대한 대응방향.” 한국개발연구원.
김원식 (2004). “고령화 사회에서의 사회보험 부담과 기업의 대응: 다층체계의 구축.” 이수희 외 (2004).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제5장. 한국경제연구원.
김태정 (2011). “인구 고령화의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노동공급 및 공적연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경제학회.
남성현 (2007). “노인 목회상담을 통한 교회 프로그램 연구: 봉선교회 노인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남주하・이수희・김상봉 (2004). “고령화가 개별 가구의 소비, 저축 및 자산규모에 미치는 효과분석.” 이수희 외 (2004).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제3장. 한국경제연구원.
대한민국정부 (2010). “새로마지플렌 1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 (2011). “새로마지플렌 2 제2차_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대한민국정부.
류대영 (2002). 세속화 이론과 미국 종교사.『종교와 문화』8.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1-41.
맹용길 (2002). “고령화 사회에 대한 신학적 고찰.” 장지연 외 (편) (2002).『고령화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서울: 기독교 학문연구소.
문형표・김동석・박창균・김대일・김소영・김용하・안종범 (2004). “인구고령화와 거시경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박경숙 (2003),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 과정; 은퇴의 유형화에 대한 함의.”『노동정책연구』3(1). 103-140.
박명호 (2011). “노후문제 여론조사와 은퇴계획 여론조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박성준 (2004). “고령자 고용에 관한 연구-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수희 외 (2004).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제4장. 한국경제연구원.
박원란 (2010). “혼인상태와 출산율의 관계분석.” 박사학위논문. 충남대.
박종운 (2003). “교회의 노인목회에 관한 발전방안 연구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박찬식・이우성 편 (2006).『한국교회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라』. 서울: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방현덕 (1986). “노인에 대한 교회의 교육적사명.”『신학과 세계』12. 서울: 신학과 세계.
변정현 (2011). “중·고령성인의 평생학습 유형과 활동적 고령화와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보건복지부 (2011). “201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메트라이프 노년사회연구소 (2012). “메트라이프 통합은퇴준비지수(MIRRI).” MetLife.
설은주 (2005).『고령화 시대의 노인목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성열준 (2008). “목회자 관점에서 고령사회의 노인복지목회 실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신세라 (2009). “은퇴자의 은퇴준비 과정 및 생활실태 분석.”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심상태 (1996). “세속화 현상이란?”『사목』. 215(1996년 11월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7 - 21.
안창천 (2006). “노년기 평신도 사역의 실천적인 방안 연구.” 개혁주의교회성장학회 (편).『개혁주의 교회성장』1. 서울: 개혁주의교회성장학회.
윤주현・강미나・송하승 (2004). “고령화 사회 노인주거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이강석 (2007). “고령화 사회에서 농촌교회 노인복지 활성화 방안.”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이기양 (2002).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새로운 인식.” 장지연 외 (편) (2002).『고령화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서울: 기독교 학문연구소.
이남순 (2008). “교회자원의 활용을 통한 노인 섬김 목회에 관한 연구 : 서서울교회 노인프로그램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이수희 외 (2004).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이언구 (2005). “노인학교를 통한 지역봉사 및 교회 활성화 방안.” 박사학위논문. 장신대학교.
이우성 (2002).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경제사회 변화, 교회의 사명.”『신앙과 학문』7(2). 87-123.

이우성 (2006). “고령화 사회가 교회에 무엇을 의미하나.” 박찬식・이우성 (편) (2006).『한국교회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라』.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183-214.
이은규 (2002). “노인목회를 위한 노년의 삶.”『복음과 실천신학』4. 57-77.
이인순 (2011). “한국 기혼여성의 출산기피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인재대학교.
이정석 (2011). “세속화의 신학적 이해.” 말씀사랑 http://lovebible.co.kr/xe/1972.
이종대 (2009). “고령화 사회에서 교회성장을 위한 노인목회 활성화 방안 : 노인대학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이지현・한경혜 (2012). “예비노인의 친구관계망 특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성별차이를 중심으로.”『보건사회연구』32(2). 170-205.
이혁구 (1999). “탈근대사회의 가족변화와 가족윤리: 21세기 가족복지의 실천방향.”『한국가족복지학』4. 219-242.
임윤건 (2010). “고령화 사회의 농촌교회 활성화 방안.”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임진 (2013). “저성장 및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금융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3). “제1차 회의자료.” 2013. 1. 25. 동위원회.
장지연 (2002).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문제점.” 장지연 외 (편). (2002)『고령화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서울: 기독교 학문연구소.
전영수 (2011).『은퇴대국의 빈곤보고서』. 서울: 맛있는책.
전현배・이인재 (2009). “가족구조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노동정책연구』9(1). 1-25.
전경숙・장숙랑・박수잔 (2012). “노인의 사회 관계망 및 사회적 지지와 허약의 관계.” *Journal of Korean Geriatrics Society* (16)2. 84-94.
정경희 외 (2011). “베이비 붐 세대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정책수립 방향 연구.” 정책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_____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순둘・박현주・김보경 (2011).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관한 인식과 대책-신문기사를 통해 본 동향 분석.”『한국사회복지학』63(4). 203-224.
정신복 (2006). “노인 돌봄의 목회상담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정초시 (2012). “고령화 사회와 노동시장.”『디지털정책연구』10(1). 185-194.
조선일보 (2005). “고령화 속도 세계최고, 한국인 노후 준비는 세계 최하수준.” 2005. 9. 11일자.
조성돈 (2005).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성경적 접근.”『목회와 신학』196. 50-55.
조장옥 (2004).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이수희 외 (2004).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제2장. 한국경제연구원.
통계청 (2005).『장래인구특별추계』. 대전: 통계청.
_____ (2011). “2011 고령자 통계.”『경제활동인구조사』. 대전: 통계청.
_____ (2013a). “2013 고령자 고용동향.”『경제활동인구조사』. 대전: 통계청.
_____ (2013b).『가계금융·복지조사』. 대전: 통계청.
한국금융연구원 (2011).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정책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2012). “2011년 노동시장 동향과 2012년 전망.”『월간 노동리뷰』 2012년 1월호. 7-32.
한국은행 (2012). “2011년 12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2012년 1월 19일.
황수경 (2012). “가구구조 변화가 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효과 분석.”『한국개발연구』 33(3). 한국개발연구원. 59-84.

ABSTRACT

Christian Response on the Aging Society Problem : from the Secularism Perspective

Seung-Wook Kim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pply the Christian solution for the aging problem from the perspective of secularism. According to the rapid transfer to the aged society, the Korean academic societies and the government suggest various answers for the problems. But it is pointed out that the most answers aimed at the economic problems and therefore they lost the important factor, which is the secularism, the core of the source of the aging problem, and that the development of life science technology accelerate the speed of the aging society more than we expected. In order to solve various problems due to the aging, the family relationship and the role of the religion should be recovered and stop the trend of secularization, and the church should let the society know it. Furthermore, the attempt to extend the length of life infinitely through the development of life science technology will bring new dispute on the origin disputes between creationism and evolutionism. It is stressed for the Christians to respond to the challenge of the materialism.

Key Words: aging, low birthrate, secularization, secularism, life science technology